

‘시험 답 유출’ 고교생들, 추가 범행 여부 등 수사 확대

광주 대동고 2학년생 2명 입건...악성코드로 빼낸 답 통제 외위 공모 시점 확인 집중...추가 범행·동급생 공모 여부도 수사 방침

광주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기말고사 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추가 범행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출제 교사 노트북 4대에 악성 코드를 심어 시험 답안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광주 대동고 2학년생 A·B군을 상대로 공모 시점, 추가 범행 또는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

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한밤중 광주 서구 대동고 4층 교무실 내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 과목별 출제 교사들의 노트북 4대에 문항 정보표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노트북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이미지 파일로 수시 저장하는 ‘악성 코드’가 담긴 USB저장장치를 교사의 노트북에 설치, 문항 정보표(정답·배점) 등을 빼돌린 것

로 드러났다.

3~4일이 지난 뒤 교무실에 다시 침입, 기말고사 4개 과목(수학·지구과학·한국사·생명과학) 교사의 노트북에 화면 이미지 저장 파일 형태로 남아있던 문항 정보표, 시험지 등을 다시 USB에 담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과 욕심이 컸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다만 A군과 B군이 언제부터 구체적인 답안 유출 계획을 공모했는지,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벌였는지 등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앞선 교내 시험에서도 시험지(출제 가안 등) 또는 답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이들의 진술에서 관련 공모 시점이 명확치 않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A·B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전자 정보 법의학 감식)도 의뢰, 유출된 문항 정보표 또는 시험지 일부 문항 등을 공유 받은 동급생이 있는지도 파악한다.

또 ‘악성 코드’를 사용해 교사의 업무용 컴

퓨터 시스템 등에 침입해 저장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A군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과목 담당 교사가 출제를 마친 시험지 가안을 평가 담당 교사에게 넘겨 시험지 관리 보안이 강화되기 전이라서 A군 등의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무실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이 없어 학교 측은 침입 사실을 경찰 수사 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험 답안 유출 범위, 추가 공모 가능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시위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6일 서울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차에 탑승,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출근길 시위를 하고 있다.

냉장고에 아버지 시신 보관한 20대 ‘학대 정황’도 발견돼

갈비뼈 등 골절 정황 발견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아버지를 학대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충남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아버지 B씨 시신에서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B씨의 사인에 대해 사체 부패 등을 이유로 ‘사인불명’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것은 외부 충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이동이 어려운 B씨 몸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판단해 A씨에게 학대치사 혐

의도 추가로 적용한 뒤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서산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 냉장고에서 B씨의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건물관리인이 이사를 가게 된 A씨 집에 냉장고를 교체할 위해 방문했고 교체 과정에서 냉장고에 쭈그러 앉아있던 B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기자

‘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쌍방 상고포기

징역 7년 확정

교제하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 등 쌍방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 20일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종렬)가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황씨와 말다툼하던 중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황씨와 오피스텔 내에서 말다툼하다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고, 자리를 뜨려는 자신을 황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벽으로 세계 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은 황씨에게 폭행을 계속 행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4차례의 폭행이 이뤄졌고, 황씨는 지주막하 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황씨에 대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부주의하게 이동시켜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가 범행 직전 다툼을 피하고 자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했다가 자신을 따라 나온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행 경



위를 고려하면 이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머리에 간접적으로나마 충격이 있다면 사망 등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은 일반인 시각에서도 예측가능했다”며 “예견 가능성도 인정돼 포괄해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폭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함부로 끌고다니면서 머리를 떨어뜨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위로를 위해 적극 노력하지도 않았고, 당심에서도 죄책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유족 측은 “살인죄 적용을 안 해준 경찰과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면서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진실하게 바라봐서 살인죄를 적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유유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